

2017학년도 세종대학교 수시모집 논술고사 기출문제(인문계열 B형)

(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고 대신 줄을 세우거나 암표를 파는 행동은 잘못일까?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아니라고 말한다. (...) 만약 내가 어떤 노숙자에게 돈을 주고 나 대신 줄을 서게 한다고 할 때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별 문제 없다고 한다. 또한 내가 구매한 입장권을 사용하는 대신 누군가에게 팔려고 할 때에도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한다. (...)

돈을 지불한 사람과 돈을 받고 대리로 줄을 선 사람이 거래를 했다는 사실은 결과적으로 양쪽이 모두 이익을 얻었다는 뜻이다. 125달러를 내고 타인을 고용해 줄을 세운 사람은 직접 줄을 서지 않고도 셰익스피어 연극을 관람할 수 있으므로 분명히 행복을 느낀다. 그렇지 않을 거라면 애당초 타인을 고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몇 시간 동안 줄을 선 대가로 125달러를 번 사람도 행복을 느끼기는 마찬가지다. 그렇지 않을 거라면 처음부터 그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면 구매자와 판매자는 모두 행복해하고 사회적 효용은 증가한다. 이것이 바로 자유 시장이 재화를 효율적으로 분배한다고 주장하는 경제학자들의 입장이다. 시장은 사람들이 서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거래하는 것을 허용하고, 가장 높은 가치를 매기는 사람에게 재화를 할당한다. 이때 가치 기준은 돈을 얼마나 지불할 의사가 있느냐로 가능하다.

(나) 친구들과 중국 음식점을 찾은 날, 자장면과 짬뽕 가운데 뭘 고를지 잠시 고민을 하다 한 가지 음식을 결정했다. 그러다가 한 친구가 나서서 “우리 탕수육도 한 접시 주문하자.”라고 제안하였다. 여기저기서 “좋아, 좋아.” 소리가 터져 나오고, 탕수육 한 접시를 주문하였다. 그렇게 주문한 음식들이 모두 나오면, 이때부터 한 가지 재미있는 현상을 볼 수 있다. 바로 약속이나 한 듯이 탕수육을 먼저 먹기 시작하는 것이다. 실제로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 탁자 위를 살펴보면, 탕수육 접시는 깨끗이 비워져 있고 다들 각자 주문한 자장면이나 짬뽕을 맛있게 먹고 있다. (...)

그렇다면 왜 탕수육과 자장면을 먹을 때 대부분 탕수육이 먼저 사라지는 걸까? 탕수육이 자장면보다 더 맛있어서? 아니면 탕수육이 더 비싼 음식이라서?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모두가 함께 먹는 음식이기 때문이다. 자장면이나 짬뽕은 내 몫이 정해져 있지만 탕수육은 내 몫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니, 빨리 먹으면 먹을수록 더 많이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자기 몫의 자장면보다는 모두의 음식인 탕수육이 먼저 없어지는 것이다. (...) 이처럼 소유권이 명확한 자원과 불명확한 자원이 섞여 있을 때 소유권이 불명확한 자원이 훨씬 빨리 고갈되는 현상을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한다.

(다) 여러 경제학자들은 복잡한 인간의 행동을 게임과 실험으로 들여다보는 작업을 꾸준히 시도해 왔다. 이 가운데 가장 유명한 실험이 ‘최후통첩 실험’이다. 실험의 내용을 살펴보자. 실험자는 실험 대상으로 나선 민수와 영희 둘 중의 한 사람에게 10,000원을 준다. 만약 민수에게 돈을 주었다면 민수가 그 돈을 영희와 얼마씩 나눌 것인가를 결정하고, 그 제안을 영희에게 제시하게 한다. 민수의 제안을 영희가 받아들이면 공동 10,000원은 서로 나눠가져도 좋지만 만약 영희가 이를 거부한다면 돈은 다시 몰수된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두 사람이 자신에게 최대 이익을 가져다주는 방향으로 행동한다면 영희는 민수의 제안을 거부해서 한 푼도 못 받는 것보다는 단돈 100원이라도 받는 것이 훨씬 이득이다. 자신의 이익을 최대한 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전략으로 최소한의 금액을 제안하고, 상대방은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게임이 끝날 것이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평균적으로 배분 몫이 7대 3이 되지 않을 경우에 상대방은 아예 그 돈을 포기했던 것이다. 한 푼도 못 받는 것보다 단돈 100원이라도 받으면 이득이 되는 상황인데도 말이다. (...)

선에는 선으로, 악에는 자신의 손해를 보더라도 악으로 대하는 특징을 보이는 인간을 가리켜 호모 리시프로칸, ‘호혜적 인간’이라 부른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호모 에코노미쿠스의 특성으로는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악한 행위에 대해 보복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서로 협조하여 전체가 공생하는 길을 모색하는 인간의 행동을 설명할 수 없었다.

(라) 히말라야의 아름다운 설산을 감상하기 위해 찾아오는 세계의 여행자들 덕분에 네팔의 경제는 도움을 받고 있지만 이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다. 여행자 한 사람의 따뜻한 샤워를 위해 빨갭으로 세 그루의 나무가 베어지고 숲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 (...) 공정 여행은 편안한 여행의 대가로 자연이 파괴되지 않도록 지구의 환경을 생각하는 여행이다. 여행자가 쓰레기를 줄이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은 기본이다. 공정 여행 운동가들은 자연을 파괴할 수 있거나 동물을 이용하는 여행 상품을 이용하지 않는다. 조개, 모피, 새의 깃털로 만든 상품 등 멸종 위기에 놓인 동물들로 만든 기념품을 사지 않는 것도 공정 여행의 중요한 방법이라고 제안한다.

공정 여행가들은 여행 수입을 위해 문화를 구경거리로 전락시키는 일에 반대한다. 태국 북부 치앙마이에는 늦쇠 고리를 찬 여성들로 유명한 카렌 족 마을이 있다. 수많은 관광객들은 이 부족의 진기한 모습과 마을 풍경을 카메라에 담고 기념품을 구입한다. 그러나 카렌 족 마을 이장은 인터뷰에서 “(...) 우리들의 전통문화는 이미 상품이자 구경거리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무표정하게 긴 목을 늘어뜨리고 있는 저 여인을 보세요.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라고 말했다. (...) 공정 여행은 문화의 존중을 강조한다. (...)

공정 여행은 여행자와 그들을 맞이하는 이가 서로에게 배우고 서로를 성장시키는 상생의 여행이다. 공정 여행은 공정 무역으로서의 여행의 형태이지만, 그 대상이 초콜릿이나 신발과 같은 상품이 아니라 공간과 사람 그리고 삶에 관한 문제인 만큼, 더 넓은 의미에서 공정성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 제시문 (가)~(라)를 각각 요약하고, 이 제시문들을 인간의 경제 행위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두 그룹으로 분류한 후, 각 그룹의 관점을 기술하시오. (200점, 400~500자, **제시된 작성 분량 미준수 시 0점 처리됨**)
2. 위에서 분류한 두 관점 중 하나를 선택한 후, 그 관점의 제시문을 각각 논거로 활용해 다른 관점의 제시문을 모두 비판하시오. (400점, 1,100~1,200자, **제시된 작성 분량 미준수 시 0점 처리됨**)